

# 메르스 의심 50대 女 첫 사망...광주·전남 2명은 '음성'

### 확진 환자 18명·격리조치 682명으로 급증 공포 확산

### 환자 5명 상태 불안정...자가 격리자 해외 출국 금지

국내 최초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후 유사한 증세를 앓아온 50대 여성이 사망하면서 메르스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메르스 환자수도 첫 환자 발생 후 12일만에 18명으로 늘어났으며, 자가·시설 격리 중인 대상자도 682명으로 급

증했다. 광주·전남에서는 2명이 의심환자로 격리 조치됐지만,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관련기사 7면>

1일 보건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지방병원에 입원중이던 A(여·58)씨가 이날 오후 6시께 사망했다. A씨는 지난

달 25일 급성호흡부전으로 이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병원 관계자는 "A씨가 지난달 25일 평택에서 수원으로 이송중 상태가 악화해(우리 병원) 응급실로 와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면서 "사망원인은 급성호흡곤란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메르스 첫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역학조사와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다.

A씨 외에 1일 현재 전국적으로 메르스 확진 환자는 18명이며, 이 중 1명은 상태가 많이 호전돼 퇴원 가능성이 있지만 환자 5명은 상태가 불안정하다. 또 메르스 환자와 밀접 접촉해 격리된 사람 715명 중 33명은 잠복기가 지나 해제됐으며, 682명이 격리된 상태다. 이 중 메르스 첫 번째 환자인 A(68)씨가 두 번째로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밀접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만 61명이다.

자가 격리자들은 이날부터 해외 출국과

관련해 제한적으로 조치도 뒤따른다. 복지부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격리 대상자 명단 공유를 통해 해외 출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사실 격리자는 전국 2곳의 시설에 배정돼 외부 접촉과 차단된 채 의료진의 관리와 치료를 받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비 외에도 교육비, 전기요금,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생계비 외의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수일 내 격리자 지원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와 전남에서는 1일까지 메르스 확진 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9일 메르스 의심환자로 광주 모병원으로 이송된 30대 남성 B씨는 지난 30일 1차 검사에 이어 1일 2차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판정돼 이날 오후 5시 퇴원했다. 지난달 27일 메르스 의심 환자로 이 병원에 격리 조치된 20대 여성도 1·2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지난달 31일 퇴원했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호남대 'Uni-Bro' 주관대학 선정

2015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대학생 온라인방송국 'Uni-Bro' 위탁운영 협약식이 1일 오전 광주시 동구 대의동 U대회 조직위원회의실에서 열렸다. 위탁운영 대학으로 선정된 호남대학교 박상철 부총장을 비롯한 방송반 학생과 김윤석 U대회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깨끗하고 질서있는 U대회 만들기

### 3일 교통질서·4일 친절 결의대회 등 자원봉사활동 본격화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깨끗하고 질서있는 대회'로 만들기 위한 광주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이 본격화된다.

1일 광주시와 광주 U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3일 서구 관천동 유스퀘어 광장에서 광주 U대회 지원 범절서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날 캠페인에는 운영팀 광주시장과 김해수 광주지부장, 법무부 법사랑광주연합회 등 80여명이 참석해 광주 U대회 홍보 및 교통질서 준수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광주지검은 또 광주 U대회 마스코트인 누리비를 활용한 대시민 홍보와 홍보용 부채, 팸플릿 배포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직위와 함께 '광주교통문화혁신과 선진공동체 형성'을 위한 민관협약식 및 배려운전 실천 선포식에 참여해 배려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호소하는가 하면 '광주 U대회 관련 유관기관 대책협의회'에서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범절서 준수 문화 확산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지검은 '전 직원 1인 1 입장권 갖기, 관계기관 공무원 격려 시 부상으로 입장권 증정 등 대회 범 조성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오는 4일에는 남구 진월국제테니스 주차장에서 광주 U대회 성공 기원 다짐 '정결·질서·친절운동 결의대회'가 열린다.

결의대회에는 시민리포터스와 남구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깨끗한 도시 만들기 가두 캠페인과 시기지 청소 등에 나선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U대회 실황 전 세계 생중계

### 모바일·인터넷으로 전달...靑 문화전당 홍보도 연계

'2015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의 실황이 휴대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된다.

오는 7월 3일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광주 유대회를 지구촌 곳곳에서 휴대폰 등으로 볼 수 있는 세계 대학생 LTE 온라인 방송국 'Uni-Bro'(University Brothers) 주관대학으로 호남대학교가 선정됐다.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는 1일 오전 조직위 7층 회의실에서 김윤석 사무총장과 호남대 박상철 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생 온라인방송국 'Uni-Bro' 위탁운영 협약식을 가졌다.

방송국은 광주월드컵경기장 북문 옆에 들어서며 차기 대회(2017년) 개최도시인 대만 타이베이에 중국문화대학교와 이화여대, 고려대, 울산대 학생기자, 방송국원 등 국내외 대학생 60여명이 참여한다.

호남대가 LTE온라인방송 장비와 방송인력 등 1억9300여만원을 투입하고, 광주시는 Uni-Bro 방송스튜디오 건립과 장비 및 운영 경비 등 2억7200만원을 지원한다.

호남대 통합뉴스센터가 운영할 글로벌 미디어센터 'Uni-Bro'는 광주U대회 소식을 대학생의 눈높이로 취재해 유튜브(Youtube)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한다.

특히 Uni-Bro는 오는 9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글로벌 홍보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한국의 전통문화, 예술, 관광, K-POP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송출해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세계 청년문화난장'을 주도함으로써, 'ICT 최강, KOREA'의 위상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채희종기자 chae@

## 문화전당 상징 조형물 세워지나

### 문화중심도시 추진단, 건축물 미술품 설치 공모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옛 도청 발관 인근에 세워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광주 지역 문화계에서는 문화전당의 랜드마크 기능을 보완하고 문화도시 광주의 비전을 제시하는 작품이 세워지길 바라고 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게 될 문화전당에 작품이 세워지기 때문이다.

1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최근 문화전당 내 옛 도청발관 옆 공간(18mX14.5m)에 미술품을 설치기로 하는 내용의 문화전당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공고를 냈다.

사업비(제작·설치비)는 3억8000여만원이며, 최종 당선작은 7월17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추진단의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작품에는 문화전당의 비전인 '세계를 향한 아시

아 문화의 장'이 반영돼야 한다. 문화전당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물론 조경·인테리어·공공시설물 등과 어울려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됐다.

지역 문화계는 '문화수도의 관문'인 문화전당에 시민들과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작품이 설치되길 기대하고 있다. 또 문화전당 신축 건물들이 지하에 배치돼 있어 건축물로서 랜드마크 기능이 약한 점도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도 드러났다.

나상욱 광주미협 회장은 "문화수도 광주가 지향하는 미래를 담은 작품이 선정되길 바란다"며 "이 작품이 광주의 표지석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네팔 선수단 돕기 1017만원 모금

### U대회 조직위·소방본부 등 1200여명 참여...참가비 지원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와 광주시소방본부가 대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네팔 선수단을 위해 1017만원의 성금을 마련했다.

광주U대회 조직위는 1일 "대대적으로 항공료와 체재비 등 참가 경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 선수단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을 통해 1017만원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금에는 조직위 직원 230여명과 시 소방본부 직원 1000여명이 동참했다.

네팔 선수단은 태권도 등 12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 등 88명이 참가할 계획이었으나 지진 참사 이후 30여명으로 줄인 상황이다.

네팔 선수단은 규모를 줄이면서도 3000여만원의 항공료를 대회 조직위가 부담해 주도록 요청했다. 네팔 정부가 대대적인 후 선수단의 경비 지원 불가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조직위는 네팔 선수단이 요청한 지원금 중 모금액을 제외한 2000여만원은 대회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U대회 참가를 신청한 국가는 153개국 1만 3800명에 이르고 있다.

광주U대회 관계자는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네팔 선수단을 지원하는 것은 평화대회를 지향하는 광주U대회의 또 다른 가치"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부작용:수술초기 야간 빛반점, 노안라식 수술시 건조증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필 제 140611-중-591538

**매 각 공 고**

**“요양병원” 운영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매매 및 투자자)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19-1번지 (40m 대로변 접면위치, 건강관리협회 건너편)

대 지: 522.3㎡(158.15평)

연 면 적: 2,073.86㎡(627.96평)

층 수: 지하1층, 지상8층

건축물용도: 병원(요양병원)

허 가 번 호: 2013-건축과-신축허가-108호(2013.10.18)

토지소유자: 서양새마을금고

건 축 주: 서양새마을금고

공사완공예정일: 투자자 계약 후 3개월 완공 예정

※ 매각사유  
- 대출관련 유입물건을 매각합니다.  
- 유입당시 공정을 40% 진행되어 있는 요양병원 건물로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자 하신분께 매각하고자 합니다.  
※ 계약즉시 토지, 건물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소유권 이전

**서양새마을금고**

전화문의 010-6703-4899